

# 양현종 올스타 최다득표... 나눔 '베스트 12' KIA 9명



정해영·박동원·황대인·김선빈·류지혁  
소크라테스·나성범·최형우 선발  
16일 잠실서 드림 올스타와 한판 승부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KBO 올스타 '베스트 12' 최다득표 영예를 안았다.

양현종은 지난 3일까지 진행된 팬 투표에서 유효표 264만 8888표 중 가장 많은 141만 3722표를 받으면서, 지난 2013년 봉준근 이후 두 번째로 투수 포지션에서 최다 득표 선수가 됐다.

또 투수 포지션이 선발, 중간, 마무리로 세분화된 2013년 이후 최초의 '선발투수 팬 투표 최다 득표'도 기록했다.

양현종은 선수단 투표에서는 92표를 획득하면서 108표를 받은 키움 안우진에 밀렸지만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나눔 올스타 선발투수 1위가 됐다. KIA에서는 양현종 외에 정해영(마무리 투수), 박동원(포수), 황대인(1루수), 김선빈(2루수), 류지혁(3루수), 소크라테스·나성범(이상 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가 베스트 12에 포함됐다.

중간투수와 유격수 부문 후보였던 전상현(118만 6887표)과 박찬호(121만 9077표)는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선수단 투표에서 정우영·오지환(이상 LG)에 역전당했다.

이번 베스트 12는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해 선정됐다. 드림의 두산 홍건희, 롯데 안치홍을 포함해 나눔의 키움 안우진, LG 고우석, NC 양의지, 키움 김태성, 한화 노시환 등은 선수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지만 팬 투표에서 밀려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SSG 김광현은 드림 올스타 선발투수 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면서 개인 5번째 베스트 12가 됐다. 이와 함께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 양현종과 김광현이 3년 만에 열리는 올스타전의 문을 열게 됐다.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롯데 이대호(지명타자)는 개인 통산 10번째 올스타 베스트 12가 됐다.

KIA 정해영·황대인·류지혁·소크라테스와 함께 삼성 이승현, SSG 박성현·한유섬 등 총 7명은 첫 베스트 12의 영광을 누렸다.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가 9명으로 가장 많은 베스트 12를 배출했고, LG 2명, 키움 1명이 선정됐다. 드림 올스타에서는 삼성 6명, SSG 4명, KT와 롯데가 각각 1명씩 배출했다.

베스트 12에 뽑힌 선수 중 부상 등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포지션의 최다 점수 2위 선수가 대체 선수가 선발된다.

한편 KBO는 드림 올스타 KT 이강철 감독과 나눔 올스타 LG 류지현 감독의 추천으로 팀별 13명씩 총 26명을 추가 선정, 올스타전 멤버를 꾸린다. 올스타전은 오는 7월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위기의 KIA, KT와 '외나무 다리 결투'

**T 타이거즈 전망대**

'4위 싸움' KT·한화와 홈 6연전 주전 부상 속 김도영 관심 집중



김도영

위기의 '호랑이 군단'이 외나무 다리에서 KT위즈를 만난다.

KIA 타이거즈가 수도권 9연전을 끝내고 안방으로 복귀했다. KIA는 5일부터 KT를 만나고, 8일부터는 한화이글스를 상대하는 등 홈 6연전을 펼치게 된다.

역시 시선은 KT와의 주중 3연전에 쏠린다. 1주일 전 만해도 두 팀의 자리가 달랐다. KIA가 4경기 차 4위였고, KT가 5위에 위치 했었다.

하지만 KIA가 키움·SSG를 상대로 연달아 스윙패를 기록하는 등 7연패 늪에 빠진 사이, KT는 4연승을 내달렸다.

KT가 1경기 차 앞선 4위가 됐고, KIA는 5위에서 올스타 브레이크에 앞서 전반기 막판 스피드에서 나서게 됐다.

'동병상련'의 두 팀이다.

KIA와 KT는 올 시즌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주에도 타선의 '핵심'이 나란히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KIA에서는 소크라테스가 SSG 김광현의 공에 얼굴을 맞으면서 코뼈 골절 부상을 당했고, KT에서는 강백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재활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뜨거웠던 5월과 달랐던 답답한 6월, 타격에 KIA의 순위 싸움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주 기록했던 6패 중 5패는 1점 차 패배였다. 타선의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남긴 KIA는 황대인과 소크라테스 '황소 듀오'의 부진과 부상으로 라인업 고민을 하게 됐다. 최고참 최형우도 들쭉날쭉한 모습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클린업 트리오의 중량감 극대화가 숙제가 될 한 주, 김도영의 타석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주 아쉬운 패배 속에서도 김도영은 KIA 팬들을 웃게 할 희망이었다.

지난 1일 SSG와의 경기에서 대수비로 들어갔던 김도영은 7회 첫 타석에서 최민준과의 7구 승부 끝에 밀어서 공을 담장 밖으로 넘겼다 156타석 만에 나온 김도영의 프로 데뷔 홈런이었다.

5-5 상황에서 리드를 가져온 홈런이었지만 아쉽게 경기의 6-7, 끝내기 패였다.

두 번째 홈런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김도영은 9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3일 SSG전에서 다시 한번 손맛을 봤다.

이번에는 1-3으로 뒤진 8회 서동민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장식했다. '막내'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추격 홈런을 날렸지만 이번에도 경기는 2-3 패로 끝났다.

승리의 주역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김도영은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점점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위기의 타선에서 힘과 스피드로 분위기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김도영에게 시선이 쏠리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 광주시청, 전국장애인양궁대회 종합우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이 제2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지난 1~3일 수원시 보훈재활센터에서 열린 2022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3차선발전전을 겸한 대회에서 메달 22개(금 14, 은 6, 동 2)를 쓸어 담았다. 이로써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올해 열린 3개 전국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3회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김란숙과 김옥금은 개인전 역사를 새로 썼다.

이들은 거리별 경기 70m, 60m, 50m, 30m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데 이어 개인종합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5관왕에 올랐다.

김란숙은 이명구(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와 팀을 이룬 혼성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추가, 전종목 석권 6관왕이 됐다.

함께 출전한 정진영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고, 조장문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추가했다.

광주시청 양궁팀은 국가대표 1~3차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태극마크를 예약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순천에서 열리는 순천만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를 겸한 2022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4차선발전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다.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 다시 한번 최고의 실력을 선보인 선수들의 투혼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2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제공>

## 광주FC, 오늘 광주서 부천FC 상대 K리그2 25라운드

광주FC가 홈팬들의 응원 속에 '홈 승리 행진'을 재개한다.

광주는 5일 오후 7시 광주죽구전용구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2 2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23라운드 경남FC와의 홈경기 1-4 패배와 함께 15경기 연속 무패, 홈 10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광주는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 출발선에 섰다. 그리고 24라운드 김포FC와의 원정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다시 승점 사냥을 시작했다.

브라질 출신의 새 외국인 공격수 산드로가 데뷔전에 나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등 광주는 앞선 김포와의 원정경기에서 10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공세를 펼쳤다.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2위 대전하나시티즌이 지난 라운드 부천과의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하면서 1위 광주와 승점은 다시 9점 차로 벌어졌다.

광주는 더 날카로워진 장으로 1위 독주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앞선 김포 원정에서 득점은 없었지만 광주는 10개의 슈팅 중 6개를 유효슈팅으로 장식하는 등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다.

임지성과 헤이스가 상대 진영에서 매서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실력을 발휘했고, K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산드로도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에 힘을 실어줬다.

이건희, 허을, 하승운 등 젊은 공격진은 휴식으로 체력을 충전하면서 3일 만의 경기에 대비했다.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던 박한빈도 경기 투입을 준비하는 등 광주의 전력 구성 옵션은 넓다.

또 광주는 역대 전적에서 10승 5무 4패를 기록하는 등 부천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홈에서 펼쳐진 지난 맞대결에서도 광주는 마이키의 득점을 앞세워 부천에 1-0 승리를 장식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부천은 끈끈한 조직력과 두터운 수비라인을 자랑하는 팀이다. 22경기에서 단 18골만 내주면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부천은 초반 뜨거운 질주를 펼치며 광주와 1위 싸움을 전개했다. 현재는 11승 4무 7패(승점 37)를 만들면서 4위에 자리하고 있다.

또 최근 K리그1 선두 울산현대와의 FA컵 8강전에서 승부차기 접점을 벌였고, 지난 라운드 2위 대전과의 홈경기에서는 2-0으로 승리하는 등 분위기가 좋다.

올 시즌 홈강세를 보이는 광주가 안방에서 화끈한 공격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루고 다시 승리 행보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